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7 :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우리가 동행하더니

누가복음 7 : 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복음 7 :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7 : 14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가복음 7 : 15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누가복음 7 :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셨다 하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여정은 one way 이지 two way 가 아닙니다.

후진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닌,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운명의 일방 통행 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줄로 서서 다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눅 7:11-17 에는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 : 11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우리가 동행하더니

누가복음 7 : 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복음 7 :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7 : 14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가복음 7 : 15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누가복음 7 :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셨다 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나아가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이여 멈추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앉으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나 앉고 전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성인이라 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I.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yes 라고 대답합니다.

과학은 죽음을 자연의 한 현상으로 보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만 성경은 죽음을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자연(自然)이 아닌 비자연(非自然)입니다. Natural 이 아닌
unnatural 이며, 정상이 아닌 비정상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극복되어야 할
질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질병은 적절한 처방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 세기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다고 한 것은 죽음에 대한 바른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기원이 되는 병원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 : 23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드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원죄가 들어 오게 되고 죽음이 다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창세기 3 : 19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이 격어야 할 운명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5 :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이 세상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의 병원균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이 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죽음의 병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자연이 아닙니다. 극복되어야 할 비자연인 것입니다.

II. 그러면 누가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기 때문에 아무리 옹한 의사라도 영혼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영생, eternal life 를 말합니다. Zoe aionion 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한 말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게 될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부활은 두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것이 영적 부활이며, 예수님의 재림시 경험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에, 성령이 들어와, 영생을 주시므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며, 사흘 만에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 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영적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 3:36 에서

요한복음 3 :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 부활을 통해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데전 4:16-17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 4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 4 :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서 재림을 맞는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끌어 올려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일단 잠자는 과정을 거쳤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신천 신지에서 변화된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은 영적 부활과 몸의 부활의 두 과정을 거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벌써 얻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6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면서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신 말씀은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므로,

그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 6:54 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영생은 소유하게 되고, 그런 자가 예수님의 재림시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하며

바울 사도는 영적 부활을 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 :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만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친지가 있다면 영생을 얻도록 전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별을 한다면 그것은 영영히 전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III. 다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의 육신의 죽음과 영생을 갖지 못한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몸의 죽음은 육신의 속박을 벗어 버리는 과정입니다. 더 높은 영원한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과정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육신을 벗어 버리고 영원한 신천신지로 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영결 예배는 없고, 천국 환송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을 위한 영결 예배는 없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인하고 기약하는 환송 잔치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 4 :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 위의 슬픔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갖지 못한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이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모든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슬픔의 과정이며, 고통의 순간입니다.

“죽음은 아무 것도 아니다. 죽음을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 들이라” 고 외치던 20 세기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는, 병원에 입원하여, 폐수종으로 한 달 동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발악하면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가르침도 쓰레기가 되어 영원히 과거의 뒀안길에 묻혀 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렬히 부르짖던 “죽음은 아무 것도 아니다. 죽음을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 들이라” 는 그의 주장은, 그의 이런 비참한 죽음과 함께 영원히 과거의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 :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 : 2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린도후서 5 : 3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 :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 :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 주시고자,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아들의 부활을 통해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여러 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우리 아버님의 천국 환송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모세는 할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을 그리며 추모사를 하였고,
손자 손녀들은 다같이 Amazing grace 를 부르며
천국가시는 할아버지를 환송하였습니다.
기도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삶을 예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